

발신: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수신: 39대 중앙운영위원회

제 5-2차 실무주체 연석회의 회의 결과 보고

문과대- 다른 단위에 비해 내규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다. 문화적으로 바꾸어 내야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도 합의를 하는 분위기가 주류이다. 이번 새터에서는 새내기들끼리 준비한 촌극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포스터 부착이 늦어진 것은 콘도에서 청테이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투명 테이프를 구하고 전달하느라 그렇게 되었다. 문과대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책자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3일 동안 포스터나 책자만으로 무언가를 바꾸어 내기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초맨에 대한 공감은 끌어냈지만, anti-FM 운동에 대한 것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대-단위 교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O.T.기간에 실무주체의 사정으로 급하게 기획단에서 교양을 진행하게 된 점 등은 반성을 한다. 포스터는 다 부착하도록 직접 확인하였는데, 논의 과정은 없었고 새터 자료집이 제대로 배포가 안된 반들이 있었다. 실무주체 혼자서 다 맡아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이과대-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 내규를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천이 많이 부족했다. 포스터는 당일에 부착하였지만, 책자는 돌아가는 날 배포하였다. 촌극에서도 별 다른 문제는 없었고, 한 동아리의 연극이 불편해 할 요소를 지니고 있긴 했다.

공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공대에서는 내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내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반이 눈에 띄었다. 1년에 딱 한 번 새터 기간에만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회대-내규 주체가 사회대 부회장인 관계로 계속 본부 일을 진행하다 보니 미처 포착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 본부에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새터에 참여했던 내규 기획단이 보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합의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

비온드 성교육 비디오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르게 보기에 민망했다는 평가가 단운위에서 나왔다. 내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여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다는 느낌을 가지는 단운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단위별 자치규약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법대- 실무주체가 중간에 일을 더 이상 맡기 어렵게 되어 연석회의에는 꾸준히 들어오지 못했다. 여학우 주체를 급하게 세워 교양을 진행하였고 신고함을 설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 각 반마다 여학우 주체를 세우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뒷풀이 때 몇 반이 마초맨 응원을 한 것 빼고는 별 문제는 없었다. 포스터는 다음 날 부착되었고, 법대 새터 자료집에 내규에 대한 부분을 따로 실어 많은 새내기들이 보도록 하였다.

참석한 단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단위별 사정에 맞는 자치규약 제정의 필요성이나 단위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런 논의에 기반하여 이 후 모임은 단순히 새터 내규를 준비하는 실무주체 연석회의의 수준을 넘어서 학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벌여나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00년의 연대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와 비슷한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 단위에서 주

체들이 참여하여 꾸리는 연대회의는 총여학생회 혹은 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모였던 2000년의 연성뿌연과는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다. 오히려 단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반성폭력 운동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모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고 명칭까지 정하기로 하였다.

5-2차 모임에서 제안된 안으로

*성폭력 학칙 및 성폭력 개념에 전반에 대한 단대별 오리엔테이션

*단위별 자치 규약 제정 운동

*총 MT에서의 자발적인 내규 만들기

*현장 활동 내규의 책임있는 실시

이 네가지 안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임은 3월 23일 토요일 12시 총여실에서 있습니다.

발신: 총여학생회
수신: 중앙운영위원 여력분들

연세대학교 응원단과 응원가 마쵸맨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 정리 V1.0

새내기들을 맞이한 지난 2월, 제39대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는 연세대학교 응원단의 응원가 '마쵸맨'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때 중운위에서는 응원단에게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기간동안 마쵸맨을 부르지 않을 것, 그리고 이후에 있을 대동제 아카라카 응원전과 연고전 기간에도 이를 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오리엔테이션 첫날, 응원단이 마쵸맨을 부르자 많은 단대에서 이를 분명하게 거부하는 몸짓을 보여준바 있다.

'마쵸맨'이라는 노래는 웃고 떠들며 즐기기 위한, 단순한 응원가라고만은 볼 수 없다. 재미있거나 연세성원 모두를 하나로 모아주는 응원가 중 하나라는 이유로 학기 초부터 생각 없이 불려지는 마쵸맨은, 그러나 '강한 남성, 남성다운 남성'을 칭송하며 이에 속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세의 성원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정력, 남성다움'이 남성에게는 필요한 가치인 양 편견을 양산 시키고 있다. 이러한 '강함'을 내세우며 가부장제의 남녀 차별적 성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남성상을 우리는 마쵸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친구, 마쵸맨'을 불러대는 그 순간은 연세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성역할 내에서 칭송받는 남성상을 동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마쵸맨은 극대화 된 남성성을 칭송하는 정력가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결국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쵸맨을 부르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연세 안에서 정형화된 남성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문화를 양산해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중운위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이 연세 안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양산해내고 지속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응원가 마쵸맨에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표명하는 바이다. 진정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연세를 만들고자 한다면 생각 없이, 재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적 기제들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오리엔테이션 기간과 그 이후에 응원단이 보여준 태도는 위와 같은 중운위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분명 중운위원들의 합의로써 채택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한 단체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결정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연세인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체인 중운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재차 밝히지만 응원가 마쵸맨과 관련해 발표된 입장은 중운위원 전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문제제기나 논의는 중운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제39대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응원단과 응원가 마쵸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양성이 평등한 연세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응원가 마쵸맨은 더 이상 불려져서는 안 된다.
2. 중운위 입장과 관련해 문제제기할 부분이 있다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2002년 3월 *일
제39대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